



미나마타시의 지세

미나마타시는 규슈남서부, 구마모토의 남단에 위치하여, 남쪽으로는 가고시마현 이즈미시와 이사시와 인접되고, 3방은 산과 완만한 언덕들이 연립되어 있으며 미나마타강구로부터 시가지까지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기온은 따뜻하고,162.88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산과 들판이고,자연이 풍부하며 강유역에는 취락이 점재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70%가 시가지에 거주하고 있고, 미나마타시의 거의 모든 가게와 사업소가 시가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시라누이(不知火)해에 면한 해안에는 어항도 많고 북부에는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도 있습니다.

국도268호선이 동서로, 국도3호선과 규슈신칸센이 남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규슈신칸센개업에 의해, 신 야쓰시로까지 14분, 가고시마중앙역까지32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동시에,구마모토현 야쓰시로역부터 가고시마현 센다이역까지 히사쓰오렌지철도가 달리고 있습니다.

미나마타시의 발전

1889년에 시정촌(市町村)제도실시로 인해 탄생된 가구수 2325호,인구12040명의 미나마타촌은 갯벌에서 제염업등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그저 자그만한 어촌에 불과했다.1908년에 짓소의 전신인 일본질소화학비료주식회사가 창립되면서, 회사의 발전과 함께 미나마타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912년에는 촌으로부터 정으로 되고, 그 후 철도도 개통하는 등 사회기반의 정비도 추진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후 1949년에는 정으로부터 시로되어, 근대도시건설에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구기노(久木野)촌과 합병하여 1956년에는 인구가 최고로 50461명에 도달해서 , 구마모토현에서도 손꼽히는 근대공업도시로 발전되었습니다.

그 후,미나마타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한 대도시에로의 인구유출등 영향을 받아 지역경제의 쇠퇴를 맞이하여, 인구도2008년2월에는 28843명으로 되었습니다.

지금은,재생계획의 책정과 국가의 금융지원책의 결정에 의해 짓소의 경영환경에도 개선이 보이고, 또한, 재이용기업과 전기기계관련기업,합판공장,농업 등에 의한 산업진흥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나마타시는 지금,미나마타병 문제를 극복하면서,환경에 구애하여 ‘작아도 빛나고 안심되는 따뜻한 지역’을 목표로하여,환경수도 칭호를 땀고, 자원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위해 환경모델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